

## 붙임 1

## 치쿤구니아열 감염병 개요

정의	• 치쿤구니아 바이러스(Chikungunya virus) 감염에 의한 질환
질병분류	• 제3급 법정감염병
병원체	• 치쿤구니아 바이러스 (Chikungunya virus) – family <i>Togaviridae</i> genus <i>Alphavirus</i>
병원소	• 모기 • 사람 및 영장류(Nonhuman)
매개체	• 숲모기류( <i>Aedes aegypti</i> , <i>Aedes albopictus</i> 등)
전파경로	• 치쿤구니아 바이러스에 감염된 매개모기를 통해 전파
잠복기	• 1~12일(일반적으로 3~7일)
임상 증상	• 주 증상으로는 급성 발열, 관절통 등이며 그 외에도 두통 근육통, 관절 부종 또는 발진이 있으며 피로가 수주까지 지속 • 심근염, 뇌수막염, 길랑-바레 증후군, 뇌신경마비, 눈 질환(포도막염, 망막염)과 골수염, 간염, 급성신질환 등 중증 합병증
치사율	• 극히 낮음
실험실 검사	• 검체(혈액)에서 Chikungunya virus 분리 •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 급성기에 비해 4배 이상 증가 • 검체(혈액)에서 특이 IgM 항체 검출 • 검체(혈액)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
치 료	• 대증요법
환자관리	• 환자 및 접촉자 관리: 격리 필요 없음
예 방	• 모기 기피제, 긴소매 옷 등으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함 • 치쿤구니아열 환자 및 병력자의 경우 치료종료 후 6개월간 헌혈금지

**Q 01 치쿤구니아열은 어떻게 감염·전파되나요?**

- A** - 주로 치쿤구니아 바이러스에 감염된 매개모기에 물려 감염되며,  
- 드물게는 수혈, 장기이식, 주사기 등으로 인해 전파되기도 합니다.

**Q 02 치쿤구니아열 증상은 어떤 것이 있나요?**

- A** - 모기에 물린 후 1~12일 이후에 증상이 발현되며, 급성 발열, 관절통이 주로 나타나고 이 외에도 두통 근육통, 관절 부종 또는 발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.  
- 심근염, 뇌수막염, 길랑-바레 증후군, 뇌신경마비, 눈 질환(포도막염, 망막염)과 골수염, 간염, 급성신질환 등 중증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.

**Q 03 치쿤구니아열은 어느 나라에서 주로 발생하나요?**

- A** - 아프리카 및 아시아 지역에서 주로 풍토적으로 발생하며, 특히 인도양 주변 국가 및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합니다.

**Q 04 치쿤구니아열은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하나요?**

- A** - 치쿤구니아열은 국내에서 2차 전파된 사례는 없으며, 치쿤구니아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는 매개모기인 흰줄숲모기가 전국에 서식하고 있어, 잠재적으로 전파 위험성이 있습니다.

**Q 05 치쿤구니아열 예방수칙은 무엇인가요?**

- A** -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입니다. 여행시 모기기피제, 모기장 등을 사용하고 외출시에는 밝은색의 긴팔, 긴바지를 착용하는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.  
- 해외여행 전 방문 국가의 감염병 발생 현황 및 주의 사항을 확인하고 귀국 후 2주 이내 증상 발생시 의 료기관을 방문하여 여행력을 알리고 진료 받으세요.

**Q 06 치쿤구니아열의 치료제 및 백신이 있나요?**

- A** - 치쿤구니아열 특화된 치료제가 없으며 증상에 따른 대증치료를 합니다.  
- 국내 허가된 백신은 없으며, 미국 및 EU 등에서 허가된 백신 두 종류(생백신, 바이러스유사입자백신) 백신이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.